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이영소장

과거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적인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개별 가정의 책임이었던 유아교육과 보육이 점차 기관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저출산과 맞물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국가의 책임 또한 증대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이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과 보육 내용에서는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교육과 보육이다. 다시 말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은 무상교육과 보육의 실현, 이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기관 확보, 국가 수준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한 내용의 질 관리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과 공보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유아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선진화 추진계획’에서도 유아학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육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아이사랑 플랜’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가 국가 책임제 확대이고, 6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가 부모 비용부담 완화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 즉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최근 정부의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은 학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무상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기관의 수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기관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고,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을 만들어 보급하고 교사 연수를 시행했을 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실질적인 무상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공립 기관의 확보와 함께 사립이나 민간 기관에도 지원과 함께 책무성을 부여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누리과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성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을 두고 한정된 재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가장 효율성 높은 투자의 하나로 영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향후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책무성 차원에서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